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6일 목요일 음 12월 22일 (14물)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3-5°C, 낮 최고 기온은 7-10°C로 출겠다. 산간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ranges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7:38), sunset (23:53), moonrise (17:49), moonset (11:31), and moon phase (02:18, 14:57).

Table with 2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5/8°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주의' and '높음'.

월드뉴스

日, 韓에 징용문제 해결책 제시 또 요구

한일 회담, 징용 문제 평행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장관이 회담이 끝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장관은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NHK도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 않아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양국 정상 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측이 철화를 요구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데 그쳤다고 NHK는 전했다.

당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목요일론

2020년, 제주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이성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새 천년이라는 2000년을 맞이하고도 20년에 접어들었는데, 요즘은 1년만 해도 변화무쌍하다. 올해 2020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각오는 다양하고 남다른 것 같고, 새해를 맞아 한해를 계획하면서 각자의 다짐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전국 대학교 수들이 매년 선정하는 사자성어에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됐다고 한다. 공명지조는 한 몸애 두 개

의 머리를 가진 새를 의미한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죽고 만다. 이러한 사자성어는 지난 2019년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 말 제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이 될까 궁금해진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제주에 적절한 사자성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됐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제2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지역 간 무한경쟁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0년에 대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 올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제주에서 준비하는 계획은 기존의 계획에서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진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도민들의 안녕과 청정·공존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획은 도민들과 관광객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시대의 걸맞은 가치 창출 및 향후 10년간의 세부전략도 탄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과 같이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급하게 변화하는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 중에서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인한 변화가 '인류 문명의 2대 총아'라고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원한 마당

에 과연 10년 계획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에 대한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 구상 및 토지 이용 계획 대응 전략도 꼼꼼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공간 구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변화는 급변하고 있는데 이론 및 현실은 긴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공명지조와 같은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상생과 번영의 한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20년에는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자.

열린마당

“청렴은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거야”



고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청렴은 말이야. 공무원이 돈만 안 먹으면 그게 청렴이야”

2006년 8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한 말씀이었다. 필자가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다. 그분 고유의 철학이겠거니 싶었지만 당시 선배 공무원들은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되풀이 했다. 선배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아주 내밀한 인식이었으리라.

바뀌었고 실제,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기도 한다.

“부패만 저지르지 않으면 청렴이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도태된 개념이 됐다. ‘무조건 안된다’라는 소극 행정에 대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고, 또한 정부에서는 물론 제주도에 서도 적극 행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권장·증진하고 있다. 청렴의 패러다임이 완전 진화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야만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원 처리 혹은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공무원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돈만 안 먹으면 된다’는 청렴은 어 느새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청렴으로 바뀌었다.

어느새 공무원 15년차. 새해가 오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때마다, 청렴의 개념 또한 갱신되는 것임을 느낀다. 새로 들어올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청렴은 말이야. 점점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거야.”

화북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김정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지난 소방·병원 실습을 마치고, 두번째 소방 실습을 맞이했다. 지난 소방 실습때는 위치가 시외쪽이어서 많은 사례들을 못봐 아쉬움이 컸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제주시에 배정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4주간의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이 구급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 주셨다. 가르쳐주신 지식을 토대로 구급장비를 사용해 봤다. 또한 반장님들은 출동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고, 일론 출동을 나가 가르침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첫 출동벨이 울렸다.

나의 첫 출동 환자는 멘탈이 많이 흔들려 보였고, 말을 오락가락 했던 환자였다. 또 살짝 위협적이었어서 구급차를 두 번이나 세워 환자를 달래야 했다. 환자가 더 이상 흥분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반장님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케어해왔으면 이렇게 잘 대응할까 싶었다.

4주동안의 실습은 나에게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 구급장비나 현장에서의 많은 사례들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화북119센터 반장님들 덕분에 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반장님들과 같은 구급대원이 돼야겠다.

4주동안의 실습은 나에게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 구급장비나 현장에서의 많은 사례들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화북119센터 반장님들 덕분에 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반장님들과 같은 구급대원이 돼야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Boraflower.com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flower shop at night with the text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ju branch.